우아한 한복 입고 사찰 여행 함께 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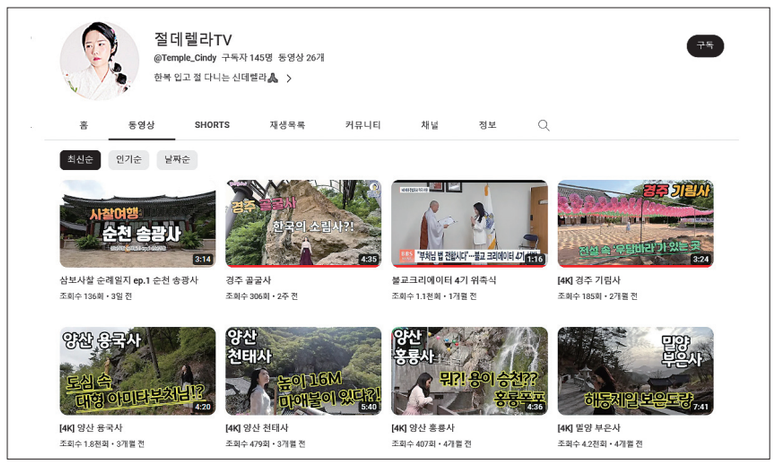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③ 절데렐라TV 이서윤

아름다운 자연과 사찰 멋 · 깊이
한복 입고 소개하며 감동 선사
변화 시대 활용될 콘텐츠 생산
다국적 인플루언서 협업 구상도



이서윤 불교크리에이터



한복 입고 사찰 소개에 나선 영상들이 가득한 유튜브 채널 '절데렐라TV'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아한 한복을 입고 사찰에 방문하는 것은 불교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불교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편 아닐까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찰에 방문하는 영상으로 가득한 유튜브 채널 '절데렐라TV' 로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4기에 위촉된 이서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는 '겸손' 과 '아름다움' 이 강조된다. 채널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사찰의 멋과 깊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싶다는 게 이서윤 크리에이터의 설명이다.

이서윤 크리에이터에게 자연과 조화를 느끼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찰에 가는 것은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다. 때문에 절데렐라TV는 '양' 보다 '질' 을 우선시한다. 많은 곳을 찾아가 영상을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닌 한 개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불교를 가치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찰 촬영 협조에 관련해 종무소에 사전 연락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촬영 금지 구역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죠. 자연스러운 영상 연출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절데렐라TV에 대한 이서윤 크리에이터의 신념을 보여준다. 불자가 아니던 시절,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 절에 가곤 했다는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따뜻하고 조용한 사찰에서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절을 방문하게 됐고 그렇게 불자가 됐다. 절을 자주 오가다가 사찰을 소개하는 채널에도 관심이 생겼다. 절데렐라TV를 개설하기 전 다양한 사찰 콘텐츠를 먼저 살펴봤다는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불교만의 특유의 아름다움과 심미적 요소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딱딱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면서 "불교 영상미를 더하고 불교의 가치와 미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뜨거운 여름이건, 추운 겨울이건 한복을 입고 사찰을 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많은 사찰들이 깊은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기에 한복 치마를 잡고 돌계단을 오를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짜릿한 성취감은 영상제작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사찰마다 한복 콘셉트 및 치마 색상까지 하나하나 정해 본래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구상한다. 이 또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조화로운 영상을 생각하며 고민을 거듭해가며 하나씩 결정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교육학 박사과정 중임과 동시에 대구사이버대학교 인플루언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불교크리에이터로 위촉된 만큼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불교 가르침과 용어를 설명하는 콘텐츠부터, 불교 Q&A, 찬불가 플레이 리스트 등이 그것이다. '미디어 채널 협력' '불교 숏폼 공모전 주최' '다국적 인플루언서 협업' 등 불교계에 건의하고 싶은 사업들도 무궁무진하다.

이서윤 크리에이터는 "종교적 다양성과 개인적 신념의 자유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20~30대 세대들이 열린 마음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영감과 내면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절데렐라TV 콘텐츠가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해 나갈 것"고 말했다.

봉선사, '화엄종주' 월운 대강백 49재

8월 3일 경내 큰법당 앞에서 엄수
1천여 대중, 월운 스님 덕화 기려



조계종 원로의원 밀운 대종사가 월운 대강백 영단에 헌화한 뒤 삼배를 올리고 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의 49재가 8월 3일 봉선사 큰법당 앞에서 엄수됐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49재에는 봉선사의 가장 큰 어른인 밀운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등 문중스님들과 생전 월운 대강백과 인연을 맺은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 봉선사 경내를 가득 메웠다.

오전 8시부터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영산의례는 종단의 의례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도맡았다. 어산어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어산종장 화암 스님, 법안 스님, 도피안 스님 등이 시련과 대령 · 관욕을, 동환 스님과 법천 스님이 신중작법을 맡았다. 또 꽃과 과일로 장엄된 월운 대강백의 영단에는 고려대장경 등 생전 스님이 역경한 경전들이 줄을 지어 자리 잡았다.

49재 법요식에서는 일면 대종사가 헌향을, 문도대표 철안 스님이 헌다를, 의정 대종사와 정원 대종사가 각각 헌화하며 월운 대강백의 덕화를 기렸다.

이어 밀운 대종사는 조사를 대신해 "월운 큰스님께서는 열반하시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다"며 "스님의 영결식과 49재는 문중장이 아닌 국가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고려대장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한글대장경으로 완간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고 월운 대강백을 상찬했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기보다 스님의 덕화 그늘에서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며 "살아가며 여쭐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여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님의 법체존안 뵙고 여쭐 수 없으니 가슴이 메인다"고 슬픔을 토해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은 월운 대강백의 업적을 하나씩 언급한 뒤 "화엄종주 대강백으로서 남기신 방대한 역경과 저술은 불멸의 문자사리가 돼 중생에게 영원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 것"이라고 추모했다.

49재의 법어는 현 동국역경원장인 혜거 대종사가 맡았다. 혜거 대종사는 월운 대강백을 향한 헌시를 통해 "왼손에 경전을 펼쳐 드시고 설한 달변의 법문은 은하수 물결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듯 중생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연꽃유치원생부터 재가제자, 광동학원 관계자와 신도들의 헌화에 이어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월운 대강백의 영결식을 비롯해 49재까지 함께해준 대중에 감사를 표하고 "후학들은 월운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포교원, 백제불교 · 큰스님 발자취 따라 순례길 개발

예산 경허 · 만공의 길, 서산 백제미소의 길
백중 의미 · 유래 · 실천 담은 책자 발간 배포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백제불교와 큰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길을 개발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개의 순례길을 만든 포교원은 올해 〈강릉 해맞이 길〉 〈연화낭자의 길〉에 이어 〈예산 경허 · 만공의 길〉과 〈서산 백제미소의 길〉을 개발, 최근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예산 경허 · 만공의 길〉과 〈서산 백제미소의 길〉은 내포문화숲길로도 유명한 서산 · 예산의 길 가운데 불교와 관계가 깊은 길들로 선정됐다. 서산과 예산은 중국과의 문화교역 요충지이자 백제 불교의 토양이 되던 지역이며, 한국 근대 불교의 선승인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이 주석했던 선불교로 명성을 떨쳤던 곳이다.

〈예산 경허 · 만공의 길〉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수덕사를 출발해서 덕숭산 주변 사찰을 순례할 수 있는 '만공 스님 순례길' 과 경허 스님이 머물렀던 천장암까지 스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경허 스님 순례길' 로 개발됐다. 만공 스님 순례길은 4.2Km 3시간, 경허 스님 순례길은 7.2Km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서산 백제미소의 길〉은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 개심사, 가야사지 등을 두루 살피며 상왕산의 아름다움과 서산에 남아 있는 백제 불교의 자취를 두루 느껴볼 수 있는 순례길이다. 이 길은 서산 마애삼존불부터 보원사, 개심사, 용현휴양림을 거쳐 다시 삼존불로 돌아오는 '숲 한 바퀴 순례길' 과 서산 마애삼존불부터 가야산 통통고개를 넘어 가야사지까지 가는 '걷기 좋은 순례길' 로 구성됐다. 각각 8Km, 9Km이며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문서 메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에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담아 국민들과 함께 사유하고 치유하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수행정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 4대 명절과 더불어 중요한 명절로 꼽히는 백중에 관한 책자도 제작했다.

이 책자는 포교원 설법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재구성됐다. △백중의 의미 △유래 △실천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포교원 불교 크리에이터 4기인 현밀 스님이 백중의 유래를 인스타툰으로 제작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교원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배포한 불교 4대 명절 소책자에 이어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전법중심도량 등의 사찰에 배포된 상태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사부대중 모두가 백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포교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고창 선운사, 전주 에코시티에 포교당 건립

전주 에코시티지구에 부지 계약
8월 4일 교구종회서 건립 승인해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가 전주 신흥개발지 에코시티에 포교당을 건립한다.

선운사는 8월 4일 선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옛 35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에코시티 종교용지 1,697㎡ (513평)을 24억 9천여 만원에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교구종회의 승인을 마쳤다.

선운사는 고창불교회관을 건립한 데 이어 그동안 광주와 전주 등 인근 대도시에 포교당 건립을 모색하던 중 마침 35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공개모집에 응찰, 계약을 체결했다.

선운사는 부지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종단에 기채 승인을 요청 이미 승인을 얻었고 교구내 사찰 중 종교용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찰을 지정했다. 매입지원 사찰은 선운사, 도솔암, 내소사, 내장사, 개암사, 동국사, 강천사, 문수사, 덕림사 등 9개 사찰이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장경사 주지 진용스님, 동국사 주지 재안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이 각각 1억, 범현 거사는 5천만원의 성금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순창 만일사와 부안 혜원사는 이미 각각 1천만원의 종교부지 매입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선운사는 포교당 건립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 교구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종교용지 땅 1평사기 등 사부대중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동명 스님, 재연 스님, 재석 스님, 철산 스님을 24교구 대종사 법계위원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교구 종회에 앞서 조계종 24교구 계묘년 하안거 포살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선사, 집중호우 희생자 합동위령재 봉행

주지 태원 스님 "동체대비 마음으로 슬픔 나누자"

호국참회 기도도량 서울 도선사가 충청 이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도선사(주지 태원)는 8월 1일 경내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전국 집중호우 희생자 합동위령재' 를 봉행했다. 위령재에는 주지 태원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국장단,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도선사는 '계묘년 홍수피해 수해 희생 각 열위열명 영가' 위패를 마련했다.

영단에 헌향과 헌화를 마친 태원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스님은 "우리 사회는 재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항상 지켜지지 못하고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유가족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비춰주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도선사가 봉행한 집중호우 희생자 합동위령재에서 펼쳐진 살풀이.

태원 스님은 이어 〈유마경〉 불국품의 '중인불청 우이안지(衆人不請 友而安之)' 를 인용하며 "여러 사람이 청하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 그들의 벗이 돼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웃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 전경자 · 배근호 홍보위원 위촉

일면 스님, 8월 7일 임명장
임기는 2025년 8월 6일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7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신규 홍보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전경자 전경자 컬렉션 대표와 배근호 성악가 등 2명을 신규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홍보위원 임기는 2025년 8월 6일까지다.

이번 신규 홍보위원 위촉은 사회 각 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이를 위촉, 생명나눔 홍보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위촉된 전경자 홍보위원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돼서 기쁘다"면서 "앞으로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경자 홍보위원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신규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장(20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장(2014), 통일부장관 표창장(2020)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러면서 "각각 분야에서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신규 홍보위원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한 뜻과 그 목적을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해 생명나눔 활성화와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공불련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025년 7월 20일까지 2년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제13대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선출됐다.

공불련은 8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에 따른 국가위기 이후 총회 등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 전임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2023년 임시대의원 총회를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로 실시, 신임 회장을 7월 21일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5년 7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앞서 공불련은 7월 3~20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체단체불자회 등 29개 기관 불자회 대의원 61명의 만장일치 서면결의를 거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승윤 신임 회장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5기)해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부산대 법과대학(행정소송실무)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소송실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위원장(차관급)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